

다니엘서 - 제72번

예언적 결합: 고대 이스라엘의 분열에서 미국의 종말까지

Jeff Pippenger

2024-02-05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증언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역사이기도 하다.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은 이스라엘, 때로는 에브라임으로 불렸고, 남왕국은 유다로 불렸다.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미 오랜 세월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두 왕국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다. 그 예언은 땅의 짐승(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에, 미국의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성취된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의 여로보암의 반역은 미국의 시작에서의 반역을 대표하며, 또한 미국의 마지막 때의 반역도 대표한다. 미국의 시작과 끝에 있는 그 반역에는 두 왕국의 연합이 포함된다. 이 글들에서 화이트 자매의 저술을 반복해서 인용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은 교회들을 향한 두 번의 부르심을 대표한다. 일요일 법 위기의 때에 연합되는 두 나라는 14만 4천과 여전히 바빌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떼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연합된 두 왕국은 유다와 에브라임이었다. 그들은 두 왕국에 대한 개별적인 진노가 각각 1798년과 이어 1844년에 끝났을 때 연합되었다. 에스겔 37장의 "moreover"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적용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 "moreover"라는 단어는 "moreover" 다음에 오는 메시지를 그 단어에 앞선 메시지 위에 놓는다는 뜻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와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라고 쓰라. 그리고 그 둘을 서로 합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15-17.

에스겔은 '더욱이'라고 말하면서 '반복과 확대'라는 예언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에스겔은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되 하나는 유다를 위해, 또 하나는 에브라임을 위해 취하고, 그 두 막대기로 상징된 예언을 가져다가 이전 예언 위에 겹쳐 놓아야 한다. 이전의 예언적 묘사는 1절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려 갔을 때 시작되었다.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와 영으로 나를 이끌어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 놓으셨다. 그리고 나로 그 뼈들 주위를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니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심히 많았고, 보라, 심히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둔게 하며 가족으로 너희를 덮고 너희 속에 호흡을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어, 뼈들이 서로 맞아 각각 제 뼈끼리 들어맞았다. 내가 보니, 보라,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피부가 그들을 덮었으나, 그들 안에는 아직 호흡이 없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바람에게 대언하라, 대언하여 바람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가게 하여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그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니, 심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다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내 백성아,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두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 곧 내가 말하였고 이루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14.

이 글들의 처음부터 우리는 죽은 뼈들의 골짜기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그들을 강력한 군대로서 두 발로 일어서게 하는 네 바람의 메시지가 셋째 화의 이슬람을 식별하는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임을 보여 주었다. 화이트 자매는 그 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한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들어 올리며, 주께서 마른 뼈와 같은 그의 믿음에서 떠난 백성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총회 회보, 1893년 2월 4일.

우리는 이전 기사들에서 2020년 7월 18일을 지목한 예언적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었으며, 그 거짓된 선포가 열 처녀의 비유에서 첫 실망과 지체의 때의 도래를 표시했음을 보였다. 밀러주의 시대에는 때를 선포하는 일이 정당했지만, 1844년 이후로는 다시는 시한을 내건 메시지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Future for America가 2020년 7월 18일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때의 선포가 용인되던 과거의 역사로 되돌아갔고, 그로써 죄를 범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큰 성의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거리에서 죽은 그들은, 사흘 반 후에 살아난 두 증인처럼, 다시 살아나야 했다.

메마른 뼈들이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성경훈련학교, 1903년 12월 1일.

이전 기사들에서 우리는 두 증인을 부활시키는 네 바람의 메시지가 셋째 화의 이슬람의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가 마지막 날들의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임을 보여 주었다. 에스겔은 "게다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밤중의 외침 선포를 묘사하는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하나와 유다를 대표하는 하나, 이 두 막대기가 서로 합하여 한 나라가 되리라고 지적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과 같이 마지막 날들에 "글자 그대로" 성취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한밤중의 외침이 성취되던 시기에,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들의 성취에서, "두 막대기"는 합쳐졌고 또 합쳐질 것이다.

그 두 막대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북왕국(에브라임)과 남왕국(유다)을 상징했다. 우리는 또한 윌리엄 밀러가 엘리야로 예표되었고, 가뭄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찾아갔음을 보여 주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보라, 내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하였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마시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오라. 그녀가 가져오러 갈 때, 그가 다시 불러 이르되, 청하노니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보소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두 개를 주워다가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그 후에 죽으려 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하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그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다. 열왕기상 17:8-15.

그 구절의 "여러 날"은 아합이 엘리야를 찾던 삼 년 반을 가리키며, 교황권의 박해 1,260년을 상징한다. 교황권의 박해의 "여러 날"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은 단축될 것이다. 마태복음 24:22.

화이트 자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날들"을 교황권에 의한 박해 기간으로 직접 규정한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1260년의 전 기간 내내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자비로 그들의 불같은 시련의 때를 단축하셨다. 교회에 닥칠 '큰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다' 하셨다. 마태복음 24:22.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 박해는 1798년 이전에 종식되었다. 대쟁투, 266, 267.

과부가 엘리야를 부양하던 그 "여러 날"은 다니엘이 지목한 교황권에 의한 박해의 "여러 날"이기도 했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질 때에 조금의 도움을 받겠으나 많은 이들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가담하리라. 또 그들 중 지혜 있는 자 몇이 넘어져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며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하려 하리니, 아직 정한 때가 남아 있으므로 끝날 때까지 그러하리라. 다니엘서 11:33-35.

"끝의 때"는 그 구절들에서 "정한 때"이기도 했는데, 1798년이었으며,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와 함께 지낸 때로 예표된 바와 같이 교황권의 박해의 종말을 표시하였다. 그

역사에서 남편 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 과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광야의 교회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막대기 두 개를 모으고 있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닌 두 개였다. 에스겔은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위해,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왕국을 위해 취하여 그것들을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하셨다. 그 두 왕국은 2,520년 동안 모두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여자는 하나로 합쳐질 두 막대기를 모으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하고 있었다.

주께서 '비'를 보내신 그날은 1844년 10월 22일에 결말을 맞이한 밀러파 역사에서의 한밤중 외침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니, 그날 언약의 사자가 1798년(첫 번째 진노의 끝)부터 1844년 10월 22일(마지막 진노의 끝)까지 그가 세워 오신 성전에 갑자기 오셨다. 그 기간 동안, 에스겔이 묘사한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대표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이 성취되었다. 곧 북왕국과 남왕국을 상징하는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한 임금 아래 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는 1844년 10월 22일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왕국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에 이르는 오심은 Daniel 8:14에 제시되어 있고,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오는 오심은 Daniel 7:13에 나타나 있으며, 주께서 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오심은 Malachi가 예언한 바인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Matthew 25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바, 신랑이 혼인 잔치에 이르는 오심으로도 표상되어 있다." The Great Controversy, 426.

그리스도께서는 1844년 10월 22일에 다니엘서에서 밝힌 대로 나라를 받으셨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갔고, 그의 앞으로 가까이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지나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다니엘 7:13, 14.

에스겔의 두 막대기가 합쳐지면, 그들 위에는 한 왕이 있게 된다.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그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던 그 땅에 살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곳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군주가 되리라. 에스겔 37:24, 25.

모든 선지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다윗 왕은 1844년 10월 22일에 아버지 앞에 나아와 이스라엘(북왕국)과 유다(남왕국)의 두 막대기에서 모아진 왕국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황폐하고 짓밟힌 성전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두 왕국의 흩어짐이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일으키셨을 때, 그분은 언약의 사자로서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셨으니, 이는 말라기 3장의 성취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서로 일치하므로, 에스겔도 그 사실에 동의한다.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내 법도를 따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거할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 자손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가 되리라. 또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것은 그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두리라. 또 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4-27절.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라. 그는 자기 자리에서 자라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곧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영광을 얻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니, 화평의 의논이 그 둘 사이에 있으리라. 그 면류관들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에게 여호와와 성전에서 기념이 되리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리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스가랴 6:12-15.

그리스도는 '순'이시며, 사람들이 그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밝히셨다. 이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데 마흔여섯 해가 걸렸다고 대답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이런 일들을 하니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느냐?" 요한복음 2:18-20.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흘째 되는 날의 부활은 한밤중의 외침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죽은 뼈들의 부활을 상징했다. 엘리야의 증언의 주제인 그 비는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타났다. 그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또한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이 증명되었다.

첫 번째 실망이 닥쳤을 때, 개신교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선지자들로 표상된 바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그 후 기다림의 때가 시작되었고, 이는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메시지로 이어졌으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심으로 이어졌다. 한밤중의 외침은 뼈들을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에스겔의 메시지로 표상된다. 또한 그 기간(46년) 동안, 두 막대기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한 왕을 둔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었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너 인자야, 한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무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져 그 위에 '요셉,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동무인 온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라고 쓰라. 그리고 그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 백성의 자손들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겠느냐?' 하거든,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무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내가 취하여, 그것들을 그에게,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네가 그 위에 쓴 막대기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네 손에 있으리라. 또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가 버린 이방 가운데서 취하여 사방에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두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과 그 모든 범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이 죄를 범하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7:15-23.

한밤중의 외침 때 있을 엘리야의 비에 앞서 과부가 주워 모으던 두 개의 막대기는,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으로서 1844년 10월 22일, 반표상적 속죄일이 시작될 때 한 나라로 모아지게 될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정결은 조사심판을 상징하며,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 그 두 막대기가 모이는 일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844년은 이스라엘 두 왕국의 종말이었다. 그때 그들은 하나의 왕국,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오직 한 민족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그 역사는 그들이 두 나라가 되었던 초기의 역사, 곧 여로보암의 반역의 역사로 예증되었다.

여로보암의 거짓된 예배 체계의 역사는 그의 왕국의 말기에서도 또한 드러나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에서의 아론의 반역과 북왕국의 시작에서의 여로보암의 반역은 1863년의 반역을 대표하며, 두 막대기의 합침으로 상징되는 여로보암 왕국의 끝을 1863과 겹쳐 볼 때에야 비로소 1863년이 분명히 이해된다. 그때에야 1863년은 질투의 우상을 세운 한 세대로 대표됨이 분명히 보인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마른 뼈들의 비유는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들도 골짜기의 해골들과 같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과 몸의 골격은 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없다. 그러나 그 비유가 마른 뼈들을 단지 사람의 형상으로만 서로 이어지게 두지는 않는다. 팔다리와 용모의 균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몸들이 똑바로 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이 그 몸들을 살려야 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며, 교회의 소망은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는 영향력이다. 주께서 마른 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셔야 그들이 살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그 생명 주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하며, 그래야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활동할 수 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영적 생명은 상실된다. 영적 생명이 없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 명부에는 올라 있지만, 어린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에

소속될 수는 있으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는 않다. 그들은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부지런하여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영혼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영혼을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키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노라 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난 원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유일한 보장으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품성을 본받아 그분의 영으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죽은 자들이 종종 산 자로 간주된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일컫는 '구원'을 이루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 없다.

"이 부류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잘 상징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1월 17일.